

함 즐 함 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49

2015. 5. 10

2015년 주님의교회 표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오늘의 말씀

자녀들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
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니라. 아버지들이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
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골 3:20

오늘의 주요기사

2-3 가정의 달 특집

4 2015무지개 잔치

5 정신학원에 깃든 기독교 역사

6 교회 단신

교회 일정

5/10(주) 아버지주일, 성찬주일

5/11(월) 정기당회

5/17(주) 청년주일

5/24(주) 성령강림절

발행인 : 박원호
편집인 : 배익환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홈페이지 : www.pcttv.org

주님의교회



4대가 모처럼 교회 트랙에 모였다. 왼쪽부터 딸 강성연, 외할머니 서기순, 손녀 정서영, 강석인 안수집사, 조균실 권사, 사위 정희찬

오월의 가정, 몇 가지 풍경

며칠 내린 봄비 개자, 풍성해진 연초록 나뭇잎 사이로 화창한 햇살이 눈부신 오월. 어린이 날, 아버지 날, 스승의 날, 성년의 날이 있는 오월을 우리는 ‘가정의 달’이라고 부른다. 마르틴 루터는 교회는 확대된 가정이며, 가정은 축소된 교회라는 의미에서, 가정을 ‘작은 교회’라고 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운 신적인 제도이며,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기도 하다. 가정과 같은 교회, 교회와 같은 가정이 가장 이상적인 교회이자 가정인 셈이다. 이를 위해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벧후 1:5~7)라 하셨다. 오월을 맞아, 오늘 우리 곁에 있는 몇 가지 가정의 풍경을 살펴보았다.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 가정

여러 대에 걸쳐 믿음을 이어오며 번성하는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들이 한 교회를 섬기는 것 또한 아름다운 은혜일 터이다. 그러나 4대 이상이 함께 교회에 나오는 가정을 찾기가 쉽지는 않았다. 어렵게 수소문하고, 여러 번 설득한 끝에 겨우 4대가 주님의교회에 출석하는 강석인 안수집사, 조균실 권사 가정을 만날 수 있었다.

모처럼 교회 트랙에 83세의 친정 어머니, 딸과 사위, 그리고 손녀인 2살 서영이까지 4대가 한자리에 모였다. 모두가 교회 근방의 동네에 살고 있어 4대가 같은 교회에 함께 다닐 수 있지만, 보통 주일에는 각자

의 사역이 있어 한데 모이기 어렵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가정에 숨어 있는 믿음의 내력이 만만치 않다. 강석인 집사의 할아버지는 충남 논산 성동면 고향 마을에서 하나님을 영접한 첫 신자였다. 멀리 있는 교회에 가기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할아버지 댁의 대청마루에 동네 사람들이 모여 예배를 보기도 했다. 나중에는 고향 마을에 교회를 직접 세우셨는데, 교회의 종지기는 언제나 장로였던 할아버지 뒤편이었다. 종지는 사람에게 따라 종소리가 달리 들리는 건 왜일까. 어린 시절 들판과 마을 곳곳에 울려 퍼지던 할아버지의 종소리는 어린 강 집사의 가슴에 깊이 새겨져, 가정 안에서 믿음을 굳

건히 하도록 하는 초석이 되었다.

믿음이 없던 조균실 권사가 교회에 다니게 된 건, 가슴에 종소리를 품고 자란 청년과 결혼하면서부터였다. 신앙의 뿌리가 없는 며느리를 탐탁하지 않게 생각했던 시댁 어른들의 불안은, 조 권사가 교회에 다니면서 보여준 믿음에 대한 열심과 가족 간 화목에 애쓰는 덕성으로 곧 말끔히 지워졌다. 역시 장로였던 시아버지와 시어머니의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면서, 오히려 친정 식구들을 교회로 인도했다. 어려서부터 믿음의 가정에서 보고 듣고 자란 강 집사는 자녀의 가정교육과 교회생활의 맥을 같이 했다.

> 2면에 계속

가정의 달 특집

오월의 가정, 몇 가지 풍경

>1면에서

자녀들은 유치부 시절부터 찬양대에 서는 등 성장 과정에서 시기마다 할 수 있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다. 딸 선영 씨는 모태 신앙으로 교회 안에서 성장하게 된 것이 큰 은혜이며, 교회에서 만난 형제자매는 또 하나의 가족이라 고백했다.

강 집사의 아들이 초등학교 때의 일화가 있다. 학교 보이с카우트 활동을 했었는데 다음해에 아들 스스로 그만두겠다고 선언했다. 종종 있는 보이с카우트 주말 활동으로 교회를 못가는 일이 생기자 어린 나이임에도 주일성수를 어기는 것이 부담으로 느껴졌던 것.

간혹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수는 있지만 기초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 뜨겁지는 않아도 깊이 배여 있어 생활에서 자연스레 묻어나오는 믿음, 자녀들에게도 그런 유산을 물려주고자 한다. 사위도 부평의 교회에 다니던 청년으로, 결혼 후 주님의교회로 적을 옮겼다.

가족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엄마와 외할머니의 옷매무새를 일일이 정리해주는 딸 선영 씨의 모습에서 혈문의 이슬로 적셔진 가정을 보았다.

이국의 삶이 버거운 다문화 가정 또 다른 가정 이야기 하나. 서른다



시부모와 친정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강소연 씨와 딸. 무지개잔치에서 만났다.

섯 강소연 씨는 8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스무 살 연상 남편에게 시집왔다. 결혼 후 한국으로 귀화하면서 이름도 한국식으로 바꾸었다. 아직 어린 아들과 딸이 있고, 연로한 시부모님과 홀로 되신 친정 어머니까지 일곱 식구가 함께 살고 있다.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치매에 걸려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가운데, 한국어를 못하는 친정 어머니가 사돈 내외를 돌보고 있다. 강소연 씨가 한국에 살면서 가장 어렵고 힘든 건, 자녀 교육과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언어 소통의 문제이다. 문화가 다르다 보니, 아이들의 인성을 어떻게 지도해야 할 지 감이 오지

않고, 말이 잘 통하지 않으니, 학교 공부를 지도해 주기도 어렵다. 베트남에선 사교육이 발달하지 않아 베트남 식 사교육 교재로 공부할 수도 없다. 남편이 이제 나이가 많아져서 별이가 부족해서 맞벌이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도 이웃의 따뜻한 격려와 배려가 늘 고맙다. 인터뷰 끝에, 베트남의 어린이날은 6월 1 일이라는 귀뜸. 피부와 언어를 넘어, 이제는 이 땅에서 가정을 이루고 사는 우리의 또 다른 이웃의 모습이다.

아직 결핍과 불안 가운데 있는 가정 박영아(가명)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나이가 되었다. 피시방에서 남

자아이들과 어울려 게임하는 것을 즐기고 학교는 거의 가지 않는다. 은행원이었던 엄마는 아빠와 이혼한 후, 삶의 의욕을 잃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다. 원룸 집에 가 봤자, 여기 저기 흩어져 있는 옷가지에 며칠 묵은 설거지 그릇 등에서 나는 냄새가 싫다. 엄마는 점점 우울증으로 발전하면서 그나마 일하던 곳도 그만두었다. 딸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얼굴을 볼 때마다 공부 얘기만 하고, 조금만 늦어도 화를 내곤 한다. 생활은 정부에서 주는 생활보조금과, 여기저기에서 도와주는 후원금으로 어렵게 꾸려가고 있다.

학교에 애착이 없다보니 공부도 많이 밀렸다. 교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알게 되어, 중학교 과정을 새로 공부하기 시작했고, 때로 점심도 그곳에서 때운다. 의욕적으로 공부를 시작하기는 했지만, 오랜만에 책을 보다 보면 자신감이 없을 때가 많다. 다른 친구들은 학원도 다니고 과외도 하면서 대학 입시 준비를 하는데, 이렇게 주말에 몇 시간 공부해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나 고민이 되기도 한다. 용돈이 늘 부족하다 보니, 편의점 알바라도 할까 알아본 적도 있다.밤을 꼬박 새야 한다는 말에 지레 포기하긴 했지만. 아빠가 보고싶기는 > 3면으로

성경, 한자로 풀어보기 74

聖幕(성막, tabernacle)

내가그들중에거할처소를그들이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네게 보이는모양대로장막을짓고기구들도그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출애굽기 25장 8~9절)

聖經的(성경적) 意味(의미)

帳幕(장막), 會幕(회막)이라고도 표현하는 성막은 광야생활부터 솔로몬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위한 장소로 운반이 가능했던 聖所(성소)이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며 그 백성의 진정한 통치자가 되심을 상징한다. 성막은 애

굽을 출발한지 2년째 되는 해에 시내산 아래에서 세워진 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이 진행할 때 마다 항상 先行(선행)했다. 가나안 정착 후 다윗에 의해 이 성막이 예루살렘으로 옮겨졌으며 솔로몬성전의 완성과 함께 성전 건물로 대체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성막은 '하나님나라의 영원한 성전'에 대한 그림자로 간주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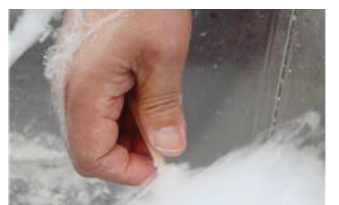
文字的(문자적) 意味(의미)

★聖(성인 성, 거룩할 성): 들음의 상징인 耳(귀 이)와 나타냄을 뜻하는 示(드릴 정)를 결합하여 '남의 말을 먼저 듣고 충분히 정리하여 자기 뜻을 나타내는 자

가 성인이다. 이러한 성인의 언행이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되었다.
★帳(장막 막, 휘장 장): 한 폭의 천을 상징하는 巾(수건 건)과 길다는 뜻의 長(긴장, 어른장)을 결합하여 '한 폭의 천을 길게 드리워 만든 가리개가 장막 또는 휘장이다'라는 의미가 되었으니 오늘날 커튼을 말한다.
★幕(장막 막, 휘장 막): 없다는 뜻의 부정사와 하지 말라는 금지사인 莫(없을 막, 말 막)에 한 폭의 천을 상징하는 巾(수건 건)을 결합하여 '없는 것처럼 감추기 위해 한 폭의 천을 드리운 가리개가 장막 또는 휘장이다'라는 글자가 되었다.

함글함글

섬기는 손 19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 세상
주님의교회 펼쳐진
무지개잔치
어린이 꿈처럼 한껏 커지는
솜사탕 솜 없이 만들어내는
섬기는 손

> '섬기는 손'은 사역 현장의 풍경을 담아 함께하기를 권유하는 작은 공간입니다.

함글함글

가정의 달 특집

필요한 것은 형제의 우애와 사랑

하지만, 엄마와 아빠가 싸우던 생각을 하면서 절레절레 고개를 흔들다.

흔히 '결손가정'이라고 치부해 버리는, 자신의 탓이 아닌 이유로 온전하지 못한 가정에서 사는 영아와 그의 어머니의 반 지하 방엔 항상 그늘이 진다. 그 누구의 책임 때문이든, 그들에게 문을 열고 형제의 우애와 사랑으로 대해주는 사마리아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

새 삶을 찾아 험로를 넘어 온 새터민 가정 김동철, 김동민(가명)은 두 살 터울 형제다. 북녘의 어느 지역에서 굶주리던 끝에, 강을 건너 그 땅을 떠났고, 중국을 거쳐 남쪽으로 왔다. 하나원에서 적응 과정을 거쳤고, 지금은 대학 입시 공부 중이다. 나이는 이미 대학 졸업할 나이가 되었고, 고등학교 졸업장도 북쪽에서 받기는 했지만,

사실상 학교를 거의 나간 적이 없기 때문에 학력은 중학교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일단 배불리 먹기라고 해야겠다고 내려왔지만, 막상 이쪽의 삶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같은 한국말이지만, 이미 분단 육십 년이 넘는 지금, 단어의 의미가 너무 달라서 책에 있는 내용은 거의 절반 밖에 이해를 못한다.

뒤늦은 공부도 정말 어렵지만, 무엇보다 이쪽 젊은이들도 경쟁에 치여 취업이 어려운 이 시대에, 정작 대학을 간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막막하기만 하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공부하다가도 힘이 빠진다. 교회 모임에서 그나마 서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생활이나 진로에 대한 조언을 듣기도 한다. 형인 김동철은 최근 결심을 굳혔다. 새터민을 색안경 끼고 보는 사람들 때문에도 남쪽에서 취업

은 어려울 듯해서, 아예 외국으로 유학을 가서 제대로 학력을 채우고, 국제기구에서 일을 배워서 통일 뒤를 준비하려는 것이다. 남쪽 사정도 알고 북쪽 사정도 알기 때문에, 아마도 통일 시점에서는 꽤 필요한 일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자부한다. 문제는 역시 돈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공부하는 데에는 경제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한다. 폐쇄된 사회의 억압을 떠나온 이들 형제가 묵는 작은 방, 별 살림 없는 주방, 전기밥솥의 식은 밥덩이와 라면 몇 봉지. 멀리 고향을 두고 온



빈센트 반 고흐의 그림, 착한 사마리아 사람

이들에게도 가정이 필요하다. 아버지, 어머니.

함글함글

베트남어 초급반 7기



주님의교회 해외선교분과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베트남어 초급반 7기 강좌가 3월 7일에 개강한지 어느덧 두 달이 되어가고 있다. 다목적공간 4층의 깨끗한 교실에서 진행되는 이 강좌는 12주 과정으로 작년 6기에 이어 청운대 교수이며 EBS 수능 인강 강사인 이강우 집사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질 수 있었다. 2012년 1기를 시작으로 어느덧 7기를 맞이한 본 강좌는 베트남 비전트립 지원, 견습선교사 파견 대비, 다문화가

정 지원 등의 취지에서 개설되어 왔다. 본 강좌에는 송파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섬기는 분들을 포함하여 베트남 선교, 베트남 언어 및 문화에 관심있는 약 20인의 수강생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교우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김용규 안수집사/해외선교분과 동남아팀

제2회 쑥쑥이 독후감 대회 시상



3월 2일부터 5월 2일까지 모집한 초등부 독후감쓰기대회 결과를 무지개잔치를 통해 시상했다. 총 53명의 응모자 중에서 독후감노트를 제대로 기록한 13명이 상을 받았다.

영예의 금상에는 양은지(연남초등학교), 은상 권선유(송전초등학교), 동상에는 김윤희(아주초등학교), 임서동(한티초등학교), 임서연(한티초등학교) 형제가 나란히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금상 양은지 양

등 수상자들은 문화상품권과 담임목사님의 상장을 통해 뜻하지 않은 어린이날 선물을 받고 싱글벙글하였다. 장려상은 한다희, 김지유, 공예리, 원소희, 정유수, 임기연, 최세운, 유선우 등 8명이다. 장려상수상자 중 당일 미수령자는 주일에 5층 도서관으로 오면 그 동안 기록했던 노트와 상장, 상품을 수령할 수 있다.

신영백 안수집사/도서사역팀장

바울 이야기 주제로 열린

2015년 무지개잔치

지난 5월 5일 주님의교회가 몸담고 있는 정신여고 교정에서는 약 1,500명의 성도 가족, 인근 주민이 참여한 가운데 “바울의 이야기”라는 주제로 무지개잔치가 열렸다. 주님이 부르신 바울 이야기를 어린이와 가족들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구성된 다양한 놀이마당, 체험관이 개설되었고, 인형극과 운동회가 펼쳐졌다. 때마침 화창한 햇살이 가득했던 이날의 풍경을 화보로 구성했다.

함글함글



바울의 전도여행길에 대해 설명을 듣는 어린이들. 바울을 따라 고행을 겪기도 하고 감옥 체험도 했다. 오후에 펼쳐진 운동회에서는 굴리기와 이어달리기 등 여러 종목에서 마음껏 실력을 뽐냈다.

사역 간증

예비해 놓으신 길

남편의 해외(싱가폴) 발령으로 이제 한 달 후면 나는 오래 정든 이곳을 떠난다. 새로운 환경에 대한 걱정과 설렘에 들떠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긴다.

5년 동안 이곳에 살면서 가장 잘 한 일이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단연 하나님을 만난 것이다. 2012년 3월, 학부모 모임에서 만난 집사님을 통해 늘푸른대학(제4기) 찬양대 반주를 맡게 되어 교회에 첫 발을 내딛은 것이 내 인생을 바꿔놓았다.

처음엔 허둥지둥 실수 연발이었다. 순서를 몰라 엉뚱한 곡을 친다든가 기도송 반주를 해야 하는데 눈을 감고 기도해 빠져 있다가 무반주로 찬양을 하게 한 일을 생각하면 혼자 있다가도 얼굴이 달아오른다. 그런 실수에도 어르신들이 감싸주시

고 격려해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다. 실수가 점점 줄고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왔다. 그리고 늘푸른대학 사역자들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밖에서 바라볼 때는 나도 편견이 있었다. 그러나 늘푸른대학의 사역자들은 달랐다. 어르신들에게 정성껏 따뜻한 밥을 배식하는 주방 팀, 따뜻한 미소로 한 분 한 분에게 인사를 건네시는 안내 팀, 유익한 내용을 전달하려고 노력하는 특별활동반 감사들, 모두 아무 대가 없이 자기 맡은 일들을 하고 계셨다.

어떻게 이런 세상이 있을 수 있을까? 교회 밖에서는 그분들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니까 오직 그 분

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자신의 이기심을 내려놓고 그 분이 맡기신 일에 정성을 다할 뿐이었다. 그분들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다. 나도 저분들을 닮고 싶다. 가장 낮은 곳에 내려와 소외된 자의 발을 씻기시는 하나님을 닮고 싶었다. 나도 기독교인이 되고 싶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다. 편견이 깨지면서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모시게 되었고 드디어 2013년 세례를 받았다. 기독교인이 되고 나서는 나도 모든 행동을 조심하게 된다. 내가 늘푸른대학의 사역자들을 통해 기독교인이 될 희망을 품었듯이 나의 뒷모습도 남들에게 좋은 영향이 되길 원하기 때문이다.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갔으면 좋겠다.



이제 이곳을 떠나지만 새로 정착할 곳에도 분명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을 것이다. 그동안 늘푸른대학의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했던 소중한 시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어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기도한다.

유재일 집사/늘푸른대학 반주

목회 칼럼

하나님을 봄

인간은 아름다운 대상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반응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선 아름다운 대상을 더욱 '갈망'(desire)하게 되고, 그리고 자기자신을 '초월'(transcend)하게 됩니다. 화창한 봄날 활짝 핀 꽃들을 볼 때, 갓 태어난 아기를 대면하게 되었을 때, 혹은 TV에서만 보던 연예인을 우연히 길에서 마주치게 된 경우, 우리는 심드렁하게 지나치지 못하고, 그 아름다운 대상을 향해 탄성을 지르고 환영하며, 더 가까이 가서 좀 더 오래 대면하고 싶어 하게 되지요, 이것을 '갈망'이라고 합니다. 그와 동시에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잠시 잊어버리게 되

는데, 이렇게 자신으로부터 잠시 빠져나오는 것을 '초월'이라고 합니다. 저는 언젠가 백두산 천지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날 아침 따라 몸도 좋지 않고, 근심이 되는 일이 있어 백두산 천지를 보게 된다는 기대감을 갖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윽고 백두산 정상에 올라 천지의 장엄한 모습을 대하는 순간, 저는 저 자신의 상황은 잊어버리고(transcend),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광경에 압도되어, 그 대상을 더욱 갈망할 뿐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의 저작 고백록에서 하나님을 일컬어 "오! 아름다움이여!(Oh! Beauty!)"라고 부릅니다. 중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아름다우신 예수님을 대

면할 때, 그분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잠시 잊게 되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기도드리는 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매 주일마다 성도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들어갈 때보다 나오실 때 표정이 더 밝은 것을 목격하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상황은 하나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의 영혼이 예배중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목격하고, 우리의 자잘한 근심은 잊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나 자신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은 자신이 자주 바라보는 것으로 자신을 구성합니다. '자주 바라본다는 것'은 인식의 주체와

인식 대상이 자주 결합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음란물을 자주 보는 사람은 음란한 사람이 되며, 잔인한 영상을 자주 보는 사람은 비인간적인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성 이냐시오의 삶의 모토는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기'였습니다. 아무리 삶이 버겁다 하더라도, 삶의 문제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주 바라보며, 자잘한 근심일랑 잊고, 하나님을 더욱 갈망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속에 더욱 선명히 빛을 발할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12:2)"

정재상 목사

사역 간증

죽봉사를 하면서

일주일에 두 번, 월요일과 목요일은 독거노인 죽배달이 있는 날이다. 송파구 거여동, 마천동에 사시는 어르신들이 드신 환자분들과 독거노인들이시다. 4년째 목요일마다 영양죽을 어르신에게 갖다드리고 있다. 한 사람은 운전을 주로, 한 사람은 배달을 주로 한다. 한 달에 두 번은 죽과 동시에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생필품도 드리고 떡과 라면, 두유, 겨울에는 내

복도 드린다. 그 분들은 우리가 방문하는 시간을 거의 기억하신다. 어떤 분들은 안아달라고 하시고,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 기도해달라는 어르신도 계신다. 너무도 반가워하시고 죽이 오는 날을 꼭 기다리고 있었다며 마냥 즐거워하시는 분들을 보면 내 마음이 그리 좋지만은 않다. 자식에게 재산을 다 주었다가 지하실로 오신 분들, 자식의 아픔으로 모든 것을 쏟은 분들, 병든 아들과 사시는 분들, 모든 분들의 공통점은 절대로 자식을 원망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봉사를 하며 나는 우

리 아이들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해 줄 수 있는 부분도 명확해야 한다는 교육관도 갖게 되었고 노후대책도 잘 세워야겠다는 가치관도 생겼다. 여름에는 냄새와 파리가 제일 힘들다. 대부분 기저귀를 하고 계셔서 요양보호사가 아무리 깨끗이 하더라도 치매노인에게에는 냄새가 심하게 난다. 마천동에 사시는 어려운 분들은 두 집 건너 한집이 폐지를 주워서 파는 일을 한다. 한번은 우리 애들이 죽배달 봉사를 따라온 적이 있다. 그 집은 폐지와 많은 고물들로 집이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 딸이 깜짝

놀라며 이런 곳에서도 사람이 사냐며 신기해했다. 죽배달을 하는 날은 내가 너무도 풍요롭게 살고 있고 정말 하루하루를 너무도 감사하게 살아야 한다는 주님의 뜻을 새길 수가 있다. 이런 시간들이 나를 감사하게끔 열심히 살게끔 종용해주는 것 같아 이 시간이 너무 귀하다. 지금은 많은 봉사자분들이 사정에 의해 그만두셨다. 이 귀한 시간을 함께 하고 싶은 분들을 꼭 많이 만나고 싶다.

명윤경 집사/죽배달 사역팀

정신학원에 깃든 한국기독교의 역사 16

교육과 신앙의 길, 김필레



YWCA 창설의 주역 김필레

김필레는 1891년 황해도 장연구 대구면 송천리(소래마을)에서 태어났다. 정신여학교를 1회로 졸업을 하고,

1913년 동경에서 유학을 했다. 1918년 다시 귀국하여 모교에서 근무하였다. 1923년 유각경, 김활란, 방신영 등과 함께 YWCA 정식 설립을 주관하며 이 땅의 여성 계몽운동을 선도하였다. 특히 김필레는 전국 17곳을 순회하면서 완벽한 조직을 만들었다. YWCA는 주권이 없는 국가에서는 독자적으로 만들기 어려웠으나 김필레의 역량으로 조선 YWCA로 창립되었다. 이 YWCA는 암울한 식민지 시대에 문명퇴치, 구습타파, 여성 계몽운동을 통해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

성 민족운동을 일깨우는 원동력이 되었다. 1925년 전조선여자기독교청년회 연합회 하령회(夏靈會)를 정신여학교 교정에서 개최하기도 했다. 그해 그녀는 다시 미국 엑네스컷 여자대학, 콜럼비아대학에서 유학을 하였다. 이 무렵 미북장로회선교부가 정신여학교를 조선인에 넘긴다는 연락을 받은 김필레는 김마리아와 함께 유지비 모금 및 저지를 위하여 미국 정신여학교 유지위원회를 조직해 활동하였다. 귀국후에도 학교를 살리기 위해 서울노회와 협력하여 이사회를

조직하였다. 교장 루이스는 '그녀의 업적이 너무 많아 그것들을 모두 열거하기가 힘들 정도'라고 적고 있다. 1947년 정신여자중고등학교 교장으로 부임하였다. 학교담을 쌓을 때부터 벽돌 하나 놓은 것까지 그분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다.(김영순 회고) 정신여학교의 개교는 미북장로회 의료선교사 애니엘러스에 의해서였다. 그리고 일제에 의해 폐교된 학교를 해방 후 다시 정신여자중고등학교로 재건시킨 주역은 김필레였다.

이희천 정신여교 교장

꼬마인터뷰 : 어린이 주일 2부 찬양 협연한 박채원 어린이

찬송가 부르면 행복해져요

지난 5월 3일 어린이주일 2부 예배에는 좀 특별한 찬양이 진행되었다. 찬양 순서가 되자, 어린이 12명이 강단으로 올라왔고, 2부 찬양대와 함께 음을 맞추어 찬양을 시작했다. 어른들의 목소리 사이에서, 앓된 화음이 5월의 꽃향기처럼 맑게 흘렀다.



“주님 말씀대로 말씀
그대로 믿으며 기뻐하며 살아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시온찬양대에서 작년에 이어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협연을 기획했고, 마침 주님의교회 어린이를 포함해 어린이성악 레슨을 하고 있는 찬양대원 한 분의 제자들을 초청한 것. 이날 눈에 띄게 아무진 자세와 진지한 표정으로 감동적인 연주를 한 박채원 양은 행당초등학교 4학년이다. 지난 3년 동안 레슨을 해 주신 선생님이 권해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무대에 올랐다. 큰 무대인데 떨리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오히려 즐겁고 행복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아니나다를까, 서울학생동요부르기 대회 예선에서 대상, 본선에서 동상을 수상한 실력자였다. 장래 희망은 뮤지컬 배우나 성우이고, 좋아하는 음식은 정말 많은데, 굳이 들자면 프라이드 치킨이다. 부모도 본인도 교회에 다니지는 않으나, 찬송가를 연습하면서 교회에 다니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는 ‘훈훈한’ 고백이 뒤따랐다. 뛰어난 실력으로 감동을 안겨준 이 어린이들 가운데에는 서울소년소녀합창단 솔리스트도 있었는데, 모두 단기방학도 반납하고 한달 이상 연습했다는 후문.

함글함글

교회단신

2015년 3월 29일 상반기 입교세례식

입교

이연진 이혜경 황재욱 김도연 김상우 안수현 이경진 이도훈 이석 채예영 하석준 한명석 강한나 김병곤 김준철 박기태 김정환 심미수 유태욱

세례

강연욱 권갑택 김문익 김성구 김영하 문성자 박완기 신한철 오재병 유영진 이상훈 이수남 이승렬 이예주 임용찬 조윤희 조은영 채미화 최민주 최윤희 한은희 황인 구예림 구예빈 김준형 노기민 박희성 신영호 최두원 최수빈 박다윤 유명선 유재현 이가현 이희원 심성임 오종연 김동현 김진희 유가양 이영진 장정호 황상현

2015년 5월 3일 유아세례식

세례

공윤서 김요한 김주현 김지율 김지훈 나도운 박도윤 백은재 신지원 이예담 이예인 이예준 이정효 장준희 조민수 조아윤 조우현 지명준 최건우 한서연 허서연 현서진 황에서

후원금 전달식



4월 12일 2부 예배와 3부 예배시에 주일 국수 제공 후원금과 성금요일 신포도주 헌금 전달식을 하였다. 주일 국수 제공 후원금은 기아대책 북한식량 지원사업 국수지원에 쓰여지고, 성금요일 신포도주 헌금은 신포도주 안과 병원 개안수술 지원금으로 쓰여질 예정이다.

장애인 주일 예배



4월 26일은 장애인 주일로, 2부와 3부 예배에서 장애인부 특송이 진행되었다. 2부에는 지체장애인부(식당나무) 특송과 3부예배시에는 청각장애인(에바다)팀 특송을 들려주었다.

남천 경로당 무료 급식



섬김과 나눔에서는 5월 6일 남천경로당에서 어버이날 경로잔치를 열었다. 정성껏 차린 식사와 함께, 호산나무옹팀에서 한국무용을 공연했다.

함글함글

5월 교구기도회 안내

교구	모임시간	모임장소
1교구	5월 29일(금) 오후 7:30	소예배실
2교구	5월 15일(금) 오후 8:00	소년부실
3교구	5월 15일(금) 오후 8:00	3집회실
4교구	5월 8일(금) 오후 8:00	소년부실
5교구	5월 15일(금) 오후 8:00	초등부실
6교구	5월 1일(금) 오후 8:00	3집회실
7교구	5월 15일(금) 오후 8:00	사랑나무실
8교구	5월 29일(금) 오후 8:00	초등부실
9교구	5월 29일(금) 오후 8:00	소년부실
10교구	5월 15일(금) 오후 8:00	자모실

아기나들이 : 2015년 4월 26일 3부 예배



윤세인 아기

1.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며
2. 사랑받고 나누기에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세요.
3. 또한, 늘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라나도록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아빠 윤관식, 엄마 윤나래, 2015년 1월 12일생



이율리 아기

1. 율리 라는 이름처럼 내면부터 빛이 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2. 받은 사랑에 감사하며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3. 눈 건강이 회복되어 건강하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길 기도합니다.

아빠 이태원, 엄마 최희진, 2014년 11월 29일생

신앙상담 ☎ 02-416-5183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시구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